

성공적인 치킨로드 조성 '맛손'

익산시, 하림·엔바이콘·치킨로드 상생협의체와 협약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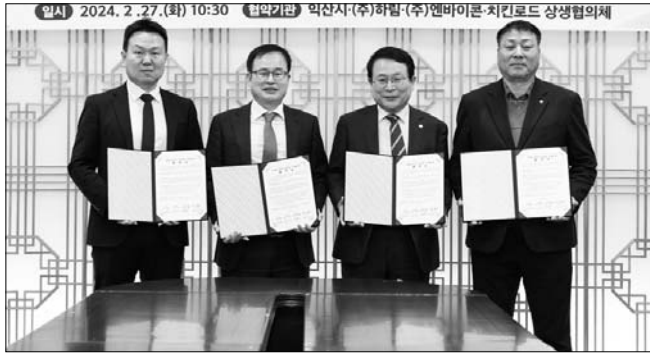
익산시가 성공적인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향토기업인 (주)하림, (주)엔바이콘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27일 익산시청에서 치킨로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 한원탁 (주)엔바이콘 대표이사, 김양배 치킨로드 상생협의체 대표가 참석했다.

치킨로드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중앙동) 일대에 닭요리 전문점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산시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닭고기 기업이자 향토기업인 (주)하림, 익산 계획립 운영기관인 (주)엔바이콘, 중앙동 치킨로드 상생협의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익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시설자원을 추진한다. (주)하림은 치킨로드에 입점하는 창업자에게 신선한 육계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주)



익산시가 성공적인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향토기업인 하림·엔바이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엔바이콘은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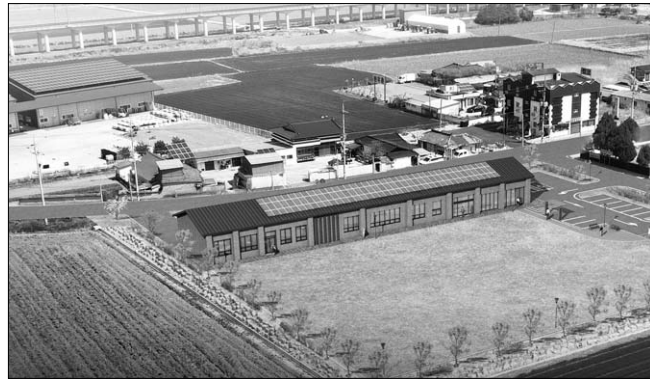
치킨로드 상생협의체는 전트피리케이션 방지 및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입점 업체 확정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협약에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치

킨로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업체 민간 행정이 합심해 체결했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치킨로드가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거리로 발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29일부터 4주간 치킨로드 조성사업에 참여할 사업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을 통해 생활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 박차

익산시, 40억원 투입... 봄나루문화센터·공동체 활동마당 등 조성

익산시가 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을 통해 생활인프라 구축 및 지역역량 강화에 속도를 낸다.

시는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봄나루 문화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읍·면 거점을 중심으로 마을 간 상호 연계망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생활인프라 구축 등으로 365생활권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총 4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봄나루문화센터 공동체 활동마당, 춘포역사공원 등을 조성한다.

봄나루문화센터는 연면적 569㎡, 지

상 1층 규모로 동아리실, 다목적포로그림실, 나눔카페, 공유주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마을사업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공동주방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환 농촌활력과장은 "춘포면은 지리적으로 민경강과 광활한 춘포들녘, 근대문화유산인 춘포역사 등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개발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지역의료협의체 간담회 개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마련

군산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강임준 군산시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군산소방서, 군산의사회,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 의료진,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과 관련, 각 의료기관별 어려움을 청취한 뒤 응급실 운영강화와 응급환자 이송 등 기관별 역할에 관한 긴밀한 협조를 각별히 당부했다.

참석자들 역시 각 참여기관별 현황을 공유한 뒤 시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 및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시와 지역 의료계 등이 소통하고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현재 군산시 보건소는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 및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군산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도 다양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비상진료체계 확립 총력...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군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는 관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현장 점검하고, 수련의 근무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민약의 사태에 대비하

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on.or.kr)을 통해 비상진료 병원 정보를 상시 제공 시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하는 등 차질 없이 운영중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은 평일 08:30부터 19:00

까지, 토요일 08:30부터 12:30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확대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계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 안전분석실 본격 운영

익산시가 안전한 지역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틀을 다지고 있다.

시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질량분석기(LC-MS/MS, GC-MS/MS) 등 최신 분석장비를 갖추고 463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의 경우 생산단계 농산물은 출하 시기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유통단계 농산물은 생산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막고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관리한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MS)'는 농산물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산물은 잔류

허용기준을 0.01mg/kg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반하면 △농산물 출하 연기·용도 전환·폐기 조치 △공익직불금 최대 40% 감액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시는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집중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 농업인은 누구나 무료로 안전분석실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의뢰하면 3~7일 이내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급과(063-859-4524)로 문의하면 된다.

분석을 의뢰한 삼기면 시금치 농가는 "이제는 무료로 검사하고 안심하고 출하할 수 있으니 많은 농업인이 이런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안전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안전분석실 이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3월부터 추진

군산시는 취약계층 및 세 자녀 이상 가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전국 9개 시도 28개 시군이 신청해 진행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시행됐던 학교 우유 급식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 밖 아동·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흰 우유로 제한되었던 유제품도 직접 고를 수 있게 선택권을 넓혀주었다.

대상은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의 사내 취약계층·세 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생이 해당된다.

신청된 아동·청소년은 백색 시유(국내산 원유 100%) 및 가공우유·발효유류·치즈류(국내산 원유원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월 15,000원의 바우처(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보석산업 활성화 위해 민·관 머리 맞대

익산시가 보석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27일 예술의전당에서 '보석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 전문가와 업체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포럼은 보석산업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판매 실적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익산 주얼리협동조합 모델 제안과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익산시와 주얼리 업체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가 준비됐다. 전문가 주제발표와 관계 공무원, 귀금속 업체 대표 등 참석자 간의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